

시사원정대 NIE 2022-5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한국인의 최근 신체 지수와 그 변화 이유를 알아본다. 나의 진로를 탐색한다.		
활동 초점	- 신체 지수와 산업화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아나운서와 작사가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12~17 맞춤칼럼 중급 - 한국인의 신체 지수	- 신체 지수 - 산업화	25
	- 34~37 이달의 인물 - 김수지 아나운서작사가	- 아나운서와 작사가 - 진로와 직업	25
	- 86~89 과학지식배틀 - 우주 통해 배송 5분컷	- 캡슐배송 - 로켓배송	3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한국인의 신체 지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5

[3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5월호 3주		
학습 목표	한국인의 최근 신체 지수와 그 변화 이유를 알아본다.		
활동 초점	- 신체 지수와 산업화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아나운서와 작사가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구분	4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12~17 맞춤칼럼 중급 - 한국인의 신체 지수	- 신체 지수 - 산업화	20
	- 34~37 이달의 인물 - 김수지 아나운서작사가	- 아나운서와 작사가 - 진로와 직업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한국인의 신체 지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5

맞춤칼럼 중급

한국인의 신체 지수

<어휘 UP>

돌파: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섬.

체질량 지수: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비만도를 가늠하는 지수.

만성질환: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끌고 잘 낫지 않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표: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거나 그렇게 정한 한계.

고립: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대폭: 썩 많이.

선제적: 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또는 그런 것.

단절: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음.

<발문>

1. 신체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적어보고, 한국인의 신체 지수와 북한 사람들의 신체 지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2. 비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집콕에 국민 10명중 4명 비만...절반은 “다른 사람 못 믿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국민 10명 중 4명꼴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만율은 처음 35%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였다. 재택 근무나 원격 수업 등 ‘집콕’ 생활이 일상화돼 운동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성은 1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만으로 여성보다 비만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비만율은 38.3%로 전년(33.8%)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은 2001년 29.2%, 2005년 31.3%, 2015년 33.2%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는데 코로나 19를 거치며 증가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만율은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와 영양 과잉 섭취, 신체 활동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통계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이 증가하고 외부활동이나 운동시설 사용이 제한되며 활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비만율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48.0%로 여성(27.7%)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본래 남성 비만율은 2001년(31.8%)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4~28% 사이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남성의 비만율 증가가 여성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 남성은 2020년 48.0%로 전년(41.8%)보다 6.2%포인트 늘었고, 여성은 27.7%로 전년(25.0%)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비만율이 41.6%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바깥 활동이 제한되며 문화 생활이나 여행 활동은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2021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24.1%, 관람 횟수는 4.5회였다. 2019년(66.2%, 8.4회)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국내 여행일수도 2020년 5.81일로 2019년(10.01일)에 비해 급감했다.

사람 사이 감염 위험으로 사람들 사이의 고립은 심화됐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대폭 떨어졌다.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019년(27.7%)보다 6.4%포인트 늘었다.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등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을 뜻한다. 사회적 고립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60대 이상은 41.6%로 나타났다

대인 신뢰도는 2020년 50.3%로 전년(66.2%) 대비 15.9%포인트 줄었다. 대인 신뢰도는

2015~2019년 65% 내외였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반면 기관 신뢰도는 2020년 47.0%로 전년(41.5%)보다 5.5% 늘었다. 의료계가 71.2%로 가장 높았고 국회가 20.2%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초기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기관 신뢰도가 높아졌다. 인간 관계가 단절되고 감염 위험이 높아져 대인 신뢰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2022-03-15]

이달의 인물

김수지 아나운서·작사가

언어로 피어나는 따스한 세상

<어휘 UP>

현황: 현재의 상황.

언론: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총계: 전체를 한데 모아서 헤아림. 또는 그 계산.

<발문>

1. 아나운서와 작사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진로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2. 내가 아나운서라면 전하고 싶은 소식은 무엇인지 정리해 원고를 작성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초등생 장래희망, 유튜버가 의사 앞질렀다

초등학생은 장래 희망으로 의사보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0 일 발표한 2019 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3 위, 의사가 4 위를 차지했다. 유튜버가 3 위를 기록한 것은 2007 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유튜버는 2017 년까지는 20 위권 밖이었다가 지난해 5 위로 급상승했다. 의사는 지난해 3 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유튜버가 상위에 오른 것은 초등학생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이

직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큰 수입을 올리는 유소년 유튜버에 대한 언론 보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튜버는 중고교생의 희망 직업으로는 20 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였다. 중고교생 1위는 지난해와 같은 교사였다. 중학생은 의사와 경찰, 고교생은 경찰과 간호사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교육부 측은 "10년 전에 비해 교사를 희망하는 중고교생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며 "상위 10위까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 총계도 감소세를 보여 희망 직업이 점점 다양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9-12-11]

과학지식배틀

우주 통해 배송 5분컷!

<어휘 UP>

자율주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일.

실증: 실제로 증명함. 또는 그런 사실.

상용화: 물품 따위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됨.

식별: 분별하여 알아봄.

재편: 다시 편성함. 또는 그런 편성.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철폐: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앴.

현행: 현재 행하여지고 있음. 또는 행하고 있음.

<발문>

1. 배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배송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자.
2. 미래에는 어떤 배송 시스템이 생길지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교사 참고자료>

책-도시락 이전 로봇배송...규제샌드박스 디지털 혁신 이끈다

로봇개발업체 로보티즈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인도와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점심 도시락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인데, 위치 인식 기능과 목적지까지의 지도 생성 및 경로 계획 등 자율주행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실증 테스트로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올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수집·이용도 어렵다. 이런 규제에도 로보티즈의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진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덕분이다.

온라인·비대면으로 재편되는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는 기존의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산업계는 전통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가능하는 주요 척도가 된 셈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산업 규제들을 철폐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2020년 8월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후속 전략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업이나 업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개 과제를 선정해 3년간 280억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들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연계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혁신으로 시장성 키운 자율주행 로봇

국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다.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순찰이나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기존의 규제라면 실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활성화되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물류 체계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 로봇도 등장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자율주행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한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을 도입했다. 이 역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된 덕에 가능했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식 도서관 로봇은 400kg 이나 나가 기존 규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현재 생태하천과 근린공원에서 최대 4대의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을 활용한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연내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식 공간에서 도서관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말까지 총 198 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107 개 기업이 사업을 시작했고 누적 매출액은 789 억 원, 투자금액은 2462 억 원에 달한다. 신규 일자리도 403 개가 생겼다. 석영철 KIAT 원장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신산업 육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수"라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실증 특례 이후에 사업화까지 성공해 디지털 사회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01-05]